

9/6/15

설교 제목: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사무엘 하 11:1-12:15, 시편 51 편

(삼하 11:1)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삼하 11:2)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삼하 11:3)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삼하 11:4)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삼하 11:5)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삼하 11:6)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헛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삼하 11:7)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삼하 11:8)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삼하 11:9)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삼하 11:10)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삼하 11:11)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삼하 1:12)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삼하 11:13)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삼하 11:14)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삼하 1:15)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삼하 11:16) 요압이 그 성을 샅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삼하 11:17)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헛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삼하 11:18)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새
(삼하 1:19)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삼하 1:20)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삼하 11:21)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쪽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벳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삼하 11:22)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삼하 1:23)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삼하 11:24)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헛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삼하 11:25)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삼하 11:26)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삼하 11:27)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삼하 12:1)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삼하 12:2)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삼하 12:3)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삼하 12:4)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삼하 12:5)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삼하 12:6)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값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삼하 12:7)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삼하 12:8)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삼하 12:9)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삼하 12:10)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삼하 12:11)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삼하 2:12)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삼하 2: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삼하 2:14)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삼하 2:15)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시 51:1)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 51:2)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 51: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 51: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 51: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 51:6)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시 51: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 51: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 51: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 51:10)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 51: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 51: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 51: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 51:14) 하나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시 51:15)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 51:16)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시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 51:18)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 51:19)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긴 본문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봉독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했습니다. 그것도 충신 우리아가 나라를 위하여, 왕인 자신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동안에 말입니다.

설상가상 밧세바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다윗은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이목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지. 미쳤었나 보다. 내가 어쩌다가.....”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강간죄 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자꾸 번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을 영원히 덮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그 죄악에 대해 침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침묵하여 이 세상 모두를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괴로워 했습니다.

그 고통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 51: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피와 뼈의 진액이 마르는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런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이 절대로 혼자 힘으로는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이대로 나누었다가는 반드시 죽을 것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먼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삼하 12:9)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삼하 12:10)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삼하 12:11)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삼하 2:12)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 앞에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인 시편 51 편입니다.

(시 51:1)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 51:2) 나의 죄악을 말갭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 51: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 51: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 51: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 51: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슬초는 영어로 hyssop 이고 히브리어로는 'ezov 에조브'라고 합니다.

벽이나 담 위에서 자라는데 향이 강하고 키가 작으면서 다발로 뭉쳐진 다년초 식물입니다.

박하같은 향을 가지고 있고 또 꽃에 기름이 함유되어 있어서 살균 보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에서는 집집마다 우슬초를 베어 단으로 묶어서 추녀에 매달아 말려
놓았다가 종교 의식에 사용했습니다.

사용되어진 예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마음이 강박해져 있던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 애굽 땅에 열 번째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재앙을 모면하는 방책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출 12:21)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출 12:22)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출 12: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우슬초 묶음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우슬초는 언약의 피, 속죄의 피를 뿌리는데도 사용되어졌습니다.

(히 9:18)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히 9: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히 9:20)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히 9:21)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히 9: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라고 한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처절한 간구입니다.

다윗은 회개하면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언약의 피로 죄가 씻기길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복을 구합니다.

(시
51: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
51: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
51: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씻김을 받고 회복하고 싶어했던 것은 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받드시 정한 마음 (Pure Heart, Clean Heart)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레 11: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할지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끗할 것, 즉 기록할 것을 명하십니다.

또 다윗은 성령이 떠나갈까봐 노심초사 하면서 성령이 떠나가지 말게 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한번 임했다 할지라도 영구적으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한번 임한 성령이
떠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의 불을 소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 깨끗한 곳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령님께서서는 더러운 곳에 계시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마음이 더러우면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떠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시고 기록하게 해 주시면 주를 전파하고 또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소원합니다.

(시
51: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
51:14) 하나님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시
51:15)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목이 터져라 주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미친듯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됩니다.

(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51:17)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매달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윗과 같이 간절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의 간구를 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고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